

## 은행

###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추진 방안 발표

**은행**

Analyst **은경완**  
02. 6098-6653  
kw.eun@meritz.co.kr

**금융당국,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발표**

전일 금융당국,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발표. 주요 내용은 1)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2)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3) 불완전판매 요인 개선, 4) 금융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요약. 은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경우 1) 선진국 대비 높은 금리 수준(9~14%), 2) 연체금리 산정 및 운용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이 개편 추진 배경으로 지목되었으며, '17년 12월 중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 합리적인 연체금리 인하 방안 마련,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 의무 및 산정방식 공시 강화 등이 예상.

**규제 리스크 부각으로 위축된 은행주 투자 심리**

현재 4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연체율은 0.24%('17년 6월말 기준)로 연체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훼손은 극히 제한적. 그럼에도 1) 연체금리 인하를 필두로 한 추가적인 마진 규제 가능성, 2)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의 가계 가중치 상향 추진 발언, 3)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시점 연기 등이 은행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 현 정부의 정책 목표가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둔화 정책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다만 1) 주택 거래량 감소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 둔화, 2) 실수요 보호 필요, 3) 내수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시 강도 높은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은행주 투자의 변곡점은 '18년 상반기**

비록 규제 관련 불확실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나, Yield Curve가 Steepening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 조정 기간은 길지 않을 것. 또한 추석 이후 발표될 3분기 호실적도 주가 상승의 Trigger point로 작용 가능. 글로벌 주요 은행 대비 이자이익에 편중된 수익구조상 금리 상승 국면에서의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 Yield curve가 Flattening되는 '18년 상반기(당사 전략팀 '18년 상반기 국내 기준금리 25bp 인상 예상)가 은행주 투자의 변곡점이라는 기존 견해 유지.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9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9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9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은경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